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완전을 목표로 삼자

[빌 4:8] **종말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셀노스)[존경할 만한 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목표를 증거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 완전이다. 우리에게 어떤 덕이나 칭찬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는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들이므로(롬 8:5-6)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몇 마디로 표현한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사에 참되고 진실한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위선과 거짓과 속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악이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다. 우리가 비록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고 자라난 가정적, 사회적 환경이 나빠서 유능한 인물이 못 된다 할지라도 참되고 진실한 인물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해야 한다.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셀노스)는 디모전서 3:8, 11에서 ‘단정하다’고 번역된 말로서 ‘존경할 만하다, 품위 있다’는 뜻을 가진다. 성도들은 법사에 존경받을 만한 태도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됨을 가리킨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옳아야 한다. 옳은 삶, 의로운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목표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한다. 죄는 더러움이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부정당한 욕심과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나 직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

에서 순결하고 흠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라는 말은 인격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이와 같이, 진실함, 존경받을 만함, 의로움, 순결함,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등은 인격의 완전함을 잘 드러낸다. 성도들은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삼고 이런 덕목들에 생각과 마음을 두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과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받고 들은 것들이란 앞에서 언급한 도덕적 완전함이다. 그들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존경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순결하고 또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고 그 교훈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들었다.

또한 그들은 그 도덕적 완전함의 한 분을 바울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았다. 사도 바울은 법사에 모범적 삶을 살았다. 비록 그가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모범이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비교적 흠이 없는 인격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행했다. 그래서 그는 3:17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3-4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간증했고, 또 고린도전서 4:16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의 교훈은 자신이 직접 실천한 바이었다. 가장 효과적 교육은 선생이 직접 실천하며 본을 보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완전함을 생활 목표로 삼고 실천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항상 생각하고 완전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구원은 생활의 변화이다. 생활이 변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이 변화하여 의인이 되고,

더러운 자가 변하여 깨끗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그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실천 강령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 26).

사도 바울은 또 “그러하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의 결과를 증거한다. 우리의 온전한 삶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이요 가장 든든한 보장이며 보증이다.

그것은 각양의 기도 응답을 포함한다. 과연 요한일서 3:21-22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였다.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복된 삶인 것이다.

온전한 삶의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뜻과 같다.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포괄적 개념이라고 본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 물질적 여유,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불안, 병, 가난, 전쟁과 반대되는 말이다. 그것은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과 같다. 이 평안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에게 오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8:18은,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라고 말했고 또 이사야 48:22과 57:21은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했다(사 48:22).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도덕적 완전함을 우리의 생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도덕적 완전함은 진실함, 존경받을 만함, 올바름, 순결함,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등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성경에 교훈된 성도의 생활의 규칙이며 우리의 성화의 목표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 완전함이다. 우리는 흠 없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본

이 되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이론을 가진 실천의 종교이다.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체험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말씀대로 도덕적 완전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이다. 비록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범 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평안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강 같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사 48:18).

### 주일오후설교 |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계 3:14-16]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하라. 아멘 진실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곧 만세 전에 그가 택하신 자들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충실하셨고 그의 뜻을 참되게 증거하셨다. 주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에게 교훈하시는 뜻이 있어 보인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주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주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셨다.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우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며 철학자들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시다.

주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다. 차거나 더웁다는 표현은 주의 복음과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열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주께서는 그의 미지근한 태도를 지적하시며 그가 분명한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 즉 믿는가, 믿지 않는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다. 미지근한 태도는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참된 믿음에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믿는 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미워하신다. 미지근한 태도는 꾸며진 불신앙이며 일종의 위선이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미워하신다. 그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즉 교인수나 재정에 있어서 부유했던 것 같다. 그 교회 목사는 자기 만족에 빠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네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나 영적으로 빈곤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의 목사의 경우와 정반대이었다. 서머나 교회의 목사는 외적으로는 빈곤하였으나 내적으로는 부유한 자이었다(계 2:9).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외적으로는 부유했으나 내적으로는 빈곤한 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재정적 부유함을 크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적, 신앙적 부유함을 크게 여기신다(눅 12:21).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리킬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다(벧전 1:7).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했고(롬 13:14),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다(갈 3:27). 또 안약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안(靈眼)을 밝게 하는 성령의 지혜를 가리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께 살 수 있다. 주님께 산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주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낸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실상,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것들을 간구할 때 그는 그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1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권면과 회개의 축구는 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고 또 책망하시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버려두시거나 아니면 벌써 쳐서 데려가셨을 것이다.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때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충고한다. 만일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2:5-6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여,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라고 말했다.

**[20-22절]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주님을 문밖에 세워두었다. 목사인 그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그의 몸을 성전 삼지 못하시고 그를 떠나 계셨다.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경우이다. 그는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해야 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

면 그는 즐거운 식탁 교제, 즉 주님과 그의 교제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심판날에 주의 보좌에 함께 앉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 라오디게아 목사 문제는 미지근한 데 있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에게는 주께 대한 불신앙과 의심이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력도 없었다. 그는 세상적 가치관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미지근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그의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회개해야 하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그의 교제의 회복, 즉 성경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문의 열림과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다.

### 수요일 설교

### 말들의 환상

[속 1:1-3]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 . . .

하나님께서서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그들의 선조들이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빠졌었으나 이제 그 후손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회개 곧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도 그를 떠나간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고, 그들은 전쟁, 기근, 질병 등의 재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4-6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 . . .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가 사람의 근본적 문제이며 회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다.

[7-1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باط월 . . . .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켰고, 그 뒤에 붉은 말들과 자색 말들과 흰말들을 타고 따르는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켰다고 본다. 붉은 말은 전쟁을, 자색 말은 죽음을,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 같다. 스가랴 시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70년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아직 성전도 재건하지 못했고 성곽은 더더욱 재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을 증거하여 주신 것이다.

[18-21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 . . .

뿔은 힘과 세력을 상징한다. ‘네 뿔’은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 사방에 있는 이방나라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네 장인들을 준비하셨고 정하신 때 그 뿔들을 꺾어 버렸다. ‘네 장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꺾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동서사방에서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나라들을 상징하였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들어 앗수르의 뿔을 꺾으셨고 또 메대와 파사를 들어 바벨론의 뿔을 꺾으셨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경적 설교와 교훈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열조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멸망했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 불경건과 우상숭배, 미움과 시기, 음란과 불결, 거짓과 탐욕 등을 다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공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도, 그 진행도, 그 완성도 하나님의 공화로 된다. 그 시작은 중생이며 그 진행은 성화이며 그 완성은 영화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화와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우리 주위에 아직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성화와 참 교회 건립을 완수할 것이다.